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반딧불이 토닥토닥



부산남구문화원



활기찬 노년생활 '토닥토닥'

김 철 남구문화원 원장

고령화시대 속 어르신들의 남은 생애 있어서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청춘에서 주최하는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동아리 <반딧불이 토닥토닥>은 올해로 두번째 동아리 활동을 마쳤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추억과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예술활동을 통해 '정신작용과 신체작용의 통합활동', '문화예술의 생활화', '예술장르와 인문학의 결합' 등 100세 시대의 건강한 생활과 삶에 대한 보상 자긍심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년도 활동은 문화예술 거점기관 탐방과 커뮤니티 및 소통이 많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예술 문화 활동에서도 불가능해지는 영역들이 생겨났고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며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있는 '비대면, 비접촉' 시대였기에 제약이 있는 활동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인문학 그리고 스토리텔링 위주의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잊고 있던 추억들을 상기 시키고 또 자신의 삶에 녹아 있는 전문분야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활동들을 통해 삶에 대한 보상 자긍심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딧불이 토닥토닥>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접할 기회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쓰고 고령화 사회의 문화예술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펼쳐주시고 함께 끝까지 열심히 활동해주신 강사님들과 동아리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Contents.

인사말

프로그램에 대하여 · 06

01 도입- '두들링 기법'을 통한 문열기 · 08

02 전개- 어릴적 내가 살던 골목에는
: 실크스크린을 통한 어린 시절 꿈의 한 장면 소환 · 16

03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
: 손 캐스팅 작업을 통한 손이 들려주는 인생이야기 · 28

04 예술 뭐 별 꺼 있나?
: 어르신들의 가장 전문분야(요리)와 예술의 만남
'인생 한그릇' · 40

프로그램을 마치며 · 50

프로그램에 대하여

반딧불이 토닥토닥 2020년 프로그램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하여 어르신들이 잊고 있던 기억들을 상기시키고 한다.

프로그램을 통한 어르신들의 작업은 평생의 삶이 녹아 있는 각자의 인생 노하우를 끄집어내는 과정들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미술체험과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보상, 자긍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 속의 작은 경험들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져 축적되어진다면 개인의 삶의 기록뿐 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자아통합감 및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 남구문화원 원장님과 함께한 개강식

01 도입 - '두들링 기법'으로 문열기

: '두들링 기법'으로 팀별 라포형성 및 낙서화를 통한 감각의 이완 및 유연화 작업을 한다.
이를 통한 무의식에 있는 기억들을 찾아내고 드러내는 연습을 한다.



▶ 2인 1조로 진행한 두들링 기법



▶ 스토리텔링 후 완성된 결과물 전시

무의식 이미지 찾기

어쩔것이어~

이귀순

기대하던 반딧불이 토닥토닥 첫 시간에 같이 앉은 짝과
둘이서 색이 다른 연필로 도화지 한 장을 둥글둥글 채워
나갔다. 짝이 그린 선을 만나야하기에 한눈을 팔수 없는데
어쩔 것이어, 눈은 침침, 생각도 출장 간 듯 가물가물

어느 때는 안쪽에서 뭉치고, 어떤 때는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어찌다가는 그 자리만 자꾸 맴돈다. 오려진 슬픈 노래 같은
동그란 그림들, 이것들을 주워서 알록달록 무지개에 걸어
놓으니 바람이 시원하게 악보를 흔든다.

올 봄, 여름과 아직 오지 않는 가을, 겨울까지 압도하고
있는 잿빛코로나. 한 달 열흘 질리게 내리던 장마도 같이
왔다. 곧 있을 태풍도 예사로울까. 시원한 것 하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 세월이 오래가고 있다는 사실

수요일 오전 알밤 같이 토실한 3시간, 모처럼 나들이 한
남구 문화원 교실에서 친절하 선생님들의 설명에 위안을
받고, 동변상련 수강생들과 반갑게 인사하니, '반딧불이
토닥토닥'의 향기가 성숙하다. 남은 올해는 이렇게
놀다가겠다.

봄이면 뒷동산
개울따라 가다 보면
숲속 향기 가득
아카시아꽃이 높고도
낮게 흐드러지게
피었었지
동무들과 꽃잎을
따서 풀피리 불며
가위바위보 놀이에
해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기억에
오늘도 하얀
아카시아꽃으로
피어납니다
어릴 적 놀던 곳은
개발되어 흔적 없고
가슴에 추억만
남았지만 지금도
아카시아꽃만 보면
행복하답니다*~^

이복순

성경말씀	장
바다를...	바다가 보이지 않는 괴림에서 그년 반을 살동안 나는 늘 우물거리 감상했다...
바다를 떠난적이 없다.. 기억속의 나의 첫사랑 영원 청년동이다...	다시 영원으로... 과거를 해수면과 같은 Apt에 살다가...
50만 내려가면 바닷가...	
동무들아 유장치스.. 계를 잡으면 나더 어린시절...	이사를 지금도 바다를 내려가 새 Apt 2층에서
	바다를 내려가 나는 남방을 즐기고 산다...
이항선을 타야하는 남자 친구를 만나.. 그년 가을 그 바다를 보니 사랑했다...	
20년 월 일	

▶ 채미영

	어릴때 친구들이랑 여름이면 해수욕장을 온전 가곤 했었다.
	그런데만 막상 준비(과정) 만만치 않았다.
	무거운 수박과 라일, 손수건, 휴지, 수영복...
	가기전부터 복통이 되었지만 막상 바다에 가면 너무 행복했었던 추억들.
	막내동생을 잊어버려 혼이 났지만 동생이 흥분을 돋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찾을 수 있었다.

▶ 이나영

02 전개 - 어릴적 내가 살던 골목에는 : 실크스크린을 통한 어린 시절 꿈의 한 장면 소환

: ‘나의 살던 고향은....’의 노래처럼 까마득한 나의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야기 한다.

어린시절 달려도 달려도 끝없이 길이 나 있고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던 마법의 상자였던, 지금도 기억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귓가에 맴도는 그 골목을 기억하고자 한다.

이미지들을 ‘실크스크린’이라는 판화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어르신들의 어린 시절 골목에서의 추억을 소환하여 기록한다.



「어깨동무 내동무」, 남성훈 글 그림, 문학동네 어린이

실크스크린을 통한 어린 시절 꿈의 한 장면 소환



▶ 스케치 도안을 판화기법으로 표현



▶ 작업 전 강사님들과의 의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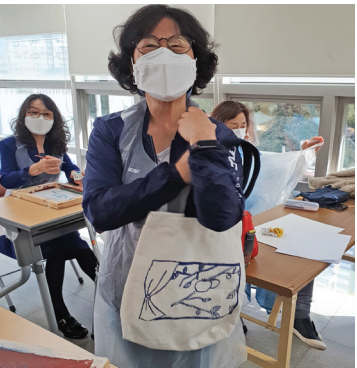
▶ 집중하고 계시는 어머님



▶ 결과물 전시



▶ 통기타 연주가 취미이신 어머니



▶ 작업 후 건조 중인 작품들



▶ 어머님들 손으로 완성한 작품들



▶ 강사님 도움으로 연습 한번

실크스크린 체험

돌고 다니는 유년

이귀순

내 고향은 아래로 뛰면 바다로 바로 골인할 수 있는 섬마을이다. 신작로를 오르내리는 돌계단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는 뽕뽕하게 집들이 들어서 있고, 집들마다 형제들이 마당에 가득했던 마을.

마을 앞 바다에는 산같은 섬이 있다. 섬은 새벽에 물질을 나가는 부지런한 사람들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오빠들이 노를 저어 주면 귀한 짝 밤과 머루 다래를 맛보게 한 섬이기도 했다.

태양이 내리찍는 한여름에 우리들은 모두 바다에서 살았다. 뛰는 것보다 헤엄치는 것을 먼저 배웠고, 물속에서 깨진 사발조각을 줍는 놀이를 했다. 그중에 나는 인어아가씨였다. 내 노란 머리카락은 바닷물에 탈색된 것이라며 ‘바다 물에서 살제~ 쫓쫓..’ 혀를 차시던 어머니. 고동껍질로 살구놀이를 하고, 모래에 금을 그어 자치기를 하며 놀다가 배고프면 바위에 널려있는 고동, 조개, 홍합을 삶아 먹었다.

유년의 기억을 떠 올리리니 속웃음이 나온다. 그것은 말로도 그림으로도 다 드러낼 수 없는 것. 서툰 솜씨지만 추억을 그리고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에코백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같이 작업한 동아리회원의 에코백에 그려진 추억도 들었다. 회원들이 더 멋져 보인다. 11월말에 고향서 만날 유년친구들도 생각했다. 그날 내가 만든 에코백을 들고 가서 보여줄 수 있을까. 친구들의 추억도 소환해보면 만남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내가 만든 에코백은 아직 유년기이다.

지금도 강아지를 13년째 키우고 있다. = 퐁퐁이.	어릴때부터 강아지는 늘 함께였다.
이름만중이나 애교도 있고, 마당식처럼 생긴 아이지만	그때는 마당에서 키웠고
식구들의 라임 사랑, 숙제간식, 낚시 산책 -- 이런 애정을 듬뿍 느낄때	음식도 우리식구가 먹어는 음식물과 누룽지등을 주셨었다.
어릴때의 강아지들의 눈빛이 생각나며	강아지가 밥을 잘 안먹는다고 엄마가 걱정하여 생선가게에서 생선머리나
그때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챙겨주지 못한게 대해서 리책감을 느끼 된다.	내장을 얻어서 폭 큰 냉채가 지금도 볼래 한 감정으로 남아있는데 (추억 하나)
빙차, 해피, 보비, 미루...	마당에서 퐁퐁이 키워서 내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	학교간때면 버스정류장까지 따라와서 내가 버스를 타면 퐁퐁이가리 문 (추억 두)

▶ 이나영

장 평 석

내 추억의 장면 속엔 언제나
감나무가 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잎새 사이로 비치던
눈부신 햇살.
소나기라도 오는 날이면 잎새 위로
후둑 후둑 떨어지던 빗방울 소리.
바람부는 날에는 감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시린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앙상한 가지에 꽃 알
뭉치 매달려 대롱거리던 홍시 까치밥 가지...
그 나무에서 판 땀감을 엮어주는 장독 안에
묵혀 달디단 홍시로 관들여 주었더랬다.
그 맛
그 빛깔
그리고 엄마...
옛 추억이 되어버린 그리운 지난 날...

별이 빛나는 밤에

채이영

고독했던 사나이
나를 늘 슬프게 하는 사내

가는 밤하늘 ..
흔들리며 반짝이는 별빛 ...
나자 악히 구름이 흐르고

흐른 그 그림을
그리던
고독했던 한자

어릴적
그 그림을 본대자 ...
그림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되고

바람 불상으로 ...
조금씩 ... 아주 조금씩 ...
4차 선택과 불을 들기 때문 ...

아직은 여전히
있고 먼 ...
그리고 그날의 세계

03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

: 손 캐스팅 작업을 통한 손이 들려주는 인생이야기

“할머니, 주름살이 걱정되세요?” 내가 물었어요.

“전혀 걱정되지 않아, 이 주름살 속에는 내 모든 기억이 담겨 있거든!”

할머니가 말했어요.

-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 중에서

주름살은 누구나 그리 반갑지 않은 존재이지만 이 그림책에서처럼 어르신들의 하나하나에 새겨진 주름살은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녹아져 있다.

존재 하나하나에 그 시절을 기억시키고자하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주름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때로는 소녀로

때로는 할아버지와 만나 설레이던 시절로

때로는 슬픔의 한 자락에 놓여 있는 그 지점으로....

오랜 삶의 기억들이 담겨 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인생의 다양한 장면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음에 흘러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현재의 나이들도 수용하는 어르신들의

참 아름다운 노년에 박수를 보낸다.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 시모나 치라올로 저
윤희진이 안혜숙, 미디어 창비



「손이 들려준 이야기」, 최승훈 그림, 김혜원 글, 이야기 꽃



▶ 알지네이트로 손주름 본뜨기



▶ 작업 전 설명하고 계시는 강사님



▶ 작품에 싸인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 틀을 걷어내면 나오는 어머님들 손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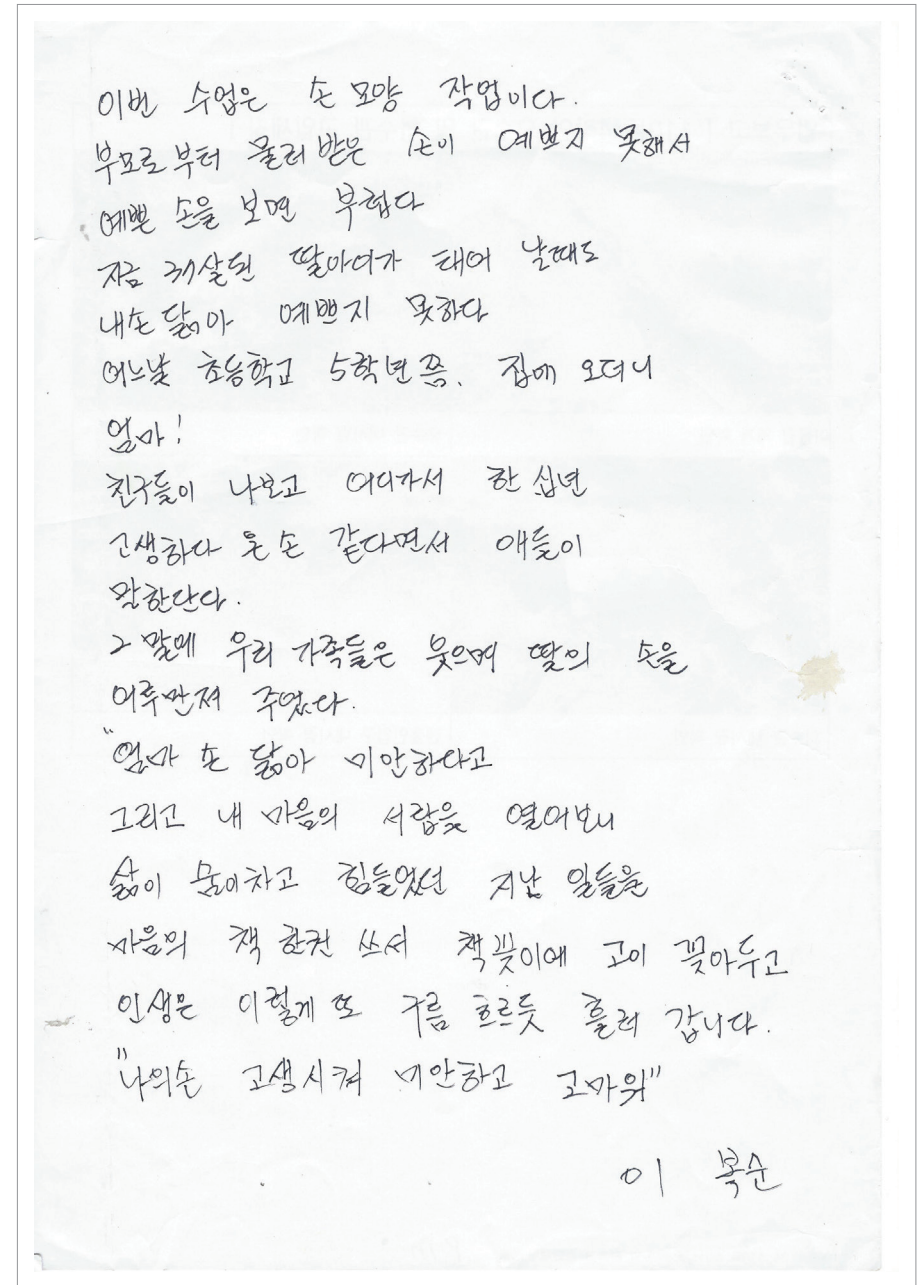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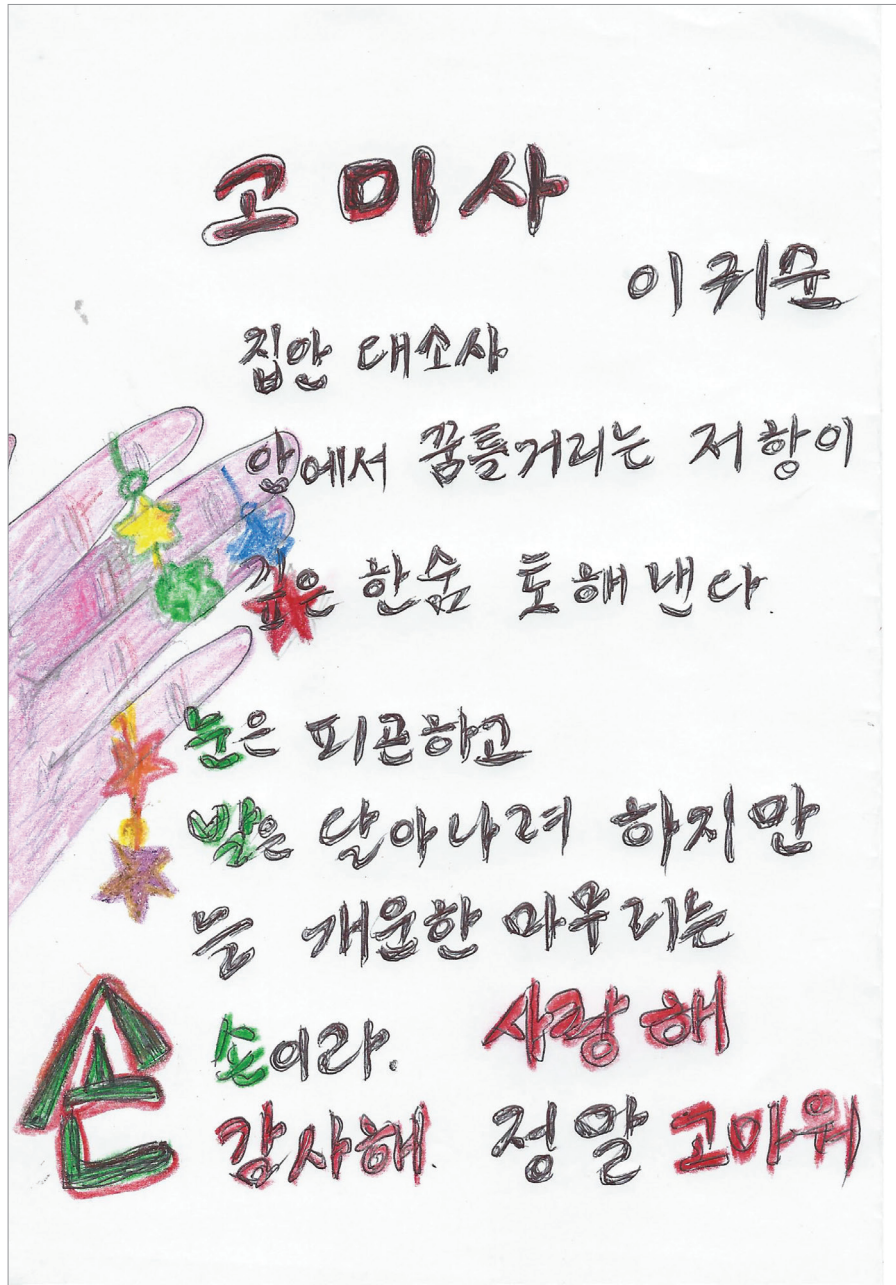


▶ 나의 인생을 담고 있는 손



▶ 작업물 실내 전시





성경말씀	장
내가 잡은 것...	레위기 11:46-47 는 여말하턴 48 면담. 북은 새로 잡게 되었고...
우물을 잡았을까...	인카나를 잡으면서 행복함을 느낀다...
엄마의 교육 방침으로 유년기인 연말. 북편반 잡았다...	아... 다 새로 잡게 된 것이 다 하나 있구나...
자기를 잡게 되면서 40년을 보통을 잡았...	공포채...
근래엔 개뿔터 사우스로 있어. 아주 많이 잡았는지...	나비들이 잡은 공포채가 나는 좋다....

▶ 채미영

말씀 본 남편과 (각장이 서운)	부산역에서 헤어지면서 한 양수 .
그때 남편의 부드러움에서도 따듯한 그 손 의 느낌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정말 그때 느꼈던 손 잡고 다니는 느낌이 참 좋아보여 나도 늘이면 저렇게 하고 싶다 했었는데	
지금의 나는 남편과 손 잡아 볼 수가 언제였나 싶다.	
이제 순간부터 손 잡는게 어색하였다.	
이제 부녀자로 그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남편 손 잡고 산책을 하러 멀리 다닐 해 본다.	

▶ 이나영

04 예술 뭐 별 꺼 있나?

: 어르신들의 가장 전문분야(요리)와 예술의 만남 ‘인생 한그릇’

‘이 나이즈음 되면 대충 눈대중으로 해도 난리가 나게 맛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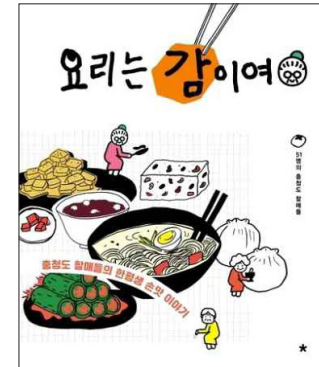
어머니들의 가장 오래된 경력을 자랑하는 전문분야 ‘요리’. 자부심이 묻어나는 대표적인 요리를 이야기 하려한다. 그리고 그 요리와 얽혀있는 사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릇에 담으려 한다.

요리에 대한 노하우는 참여자들의 활력소와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잊혀져 가는 음식문화의 채록 작업에도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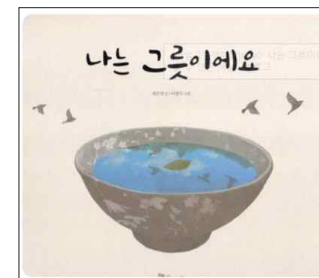
‘요리는 감이여’라는 말처럼 개량적인 비율이나 계획으로만 예술이 완성되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다양한 경험인 세월의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하다.
손맛으로 일구어 낸 참여자들의 요리 비법 인생 비법을 펼쳐보자.

“저울 찾지 말고 감으로 해보는 거지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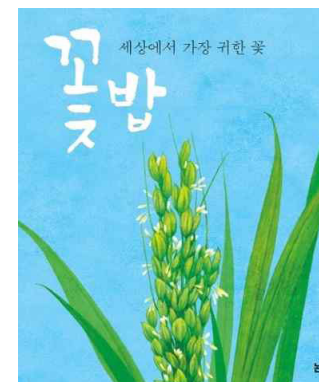
사실 우리 인생도 감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마치 예술처럼....



「요리는 감이여」
51명의 충청도 할매들, 창비교육



「나는 그릇이에요」
글쓴이 최은영, 그림이 이정국, 이론과 실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꽃밥」
글 정연숙·그림 김동성, 논장



▶ 부산시민공원 예술촌에 위치한 표지현 도자조형연구소



▶ 코일링 기법으로 차근차근 쌓아올라가는 그릇들



▶ 인생을 맛있게 담아내기 위한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어머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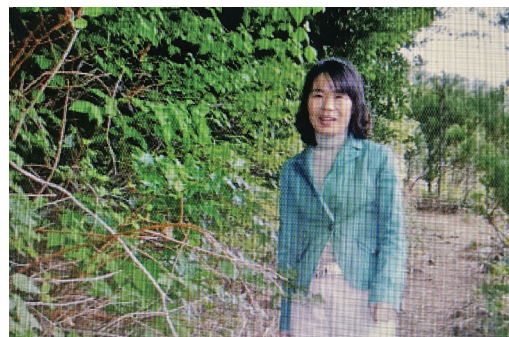


202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반딧불이 토닥토닥’을 마치며...

프로그램을 마치며

이복순

반딧불 토닥토닥
참~
정겨운 글입니다
친절하신 선생님과
더불어 그림 그리고 만들고 색칠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받는 동안 참 행복 했는데
완성도 못한 채
코로나로 중단 되어서
너무 아쉬워
다음 기회가
간절합니다.
짧은 기간 이나마
정성껏 가르쳐 주신
선생님 두분께
감사와 고마운 마음
전해 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올해도
잘~
보내시고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소소한 기억>

이 지 원(귀순)

반딧불이 토닥토닥 수업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연기되다가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었다. 참 반갑고 기뻐다.

우리의 깊은 곳곳에 있던 기억들을 꺼집어 내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젊은 강사분들의 열의에 기대도 있었다.

아직은 그럴 나이는 아닌데 지금 느끼는 소소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고 있던 차였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함께 한 짝과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며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그 때부터 우리의 기억속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그린 그림은 두들링기법으로 실크스크린작업 후에 세상에 서 하나 밖에 없는 에코백이 되었다. 가방, 스카프, 바지, 면티에 찍힌 그림을 보면서 화가가 된 기분이었다. 작품을 보면서 정성을 다하는 동아리회원들이 대단해보였다.

코로나로 중간중간 쉬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빠지는 것이 많아 회원들의 열기가 좀 빠지는 듯했지만 다시 개원해 함께한 그릇만들기(도자기체험) 시간은 의미가 있었다.

내 삶에서 밥상은 받는 것보다 차렸던 시간이 많다. 대부분의 우리 시대가 그랬을 것이다. 이제 과거의 나로 돌아가 형제들과 함께 명절과 제사때면 나물 비벼먹던 그릇이 지금은 체중조절을 위한 야채와 과일을 섞어 먹는 샐러드 그릇이 되어 있다.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것. 안타깝고 서운하기도 하다.

내가 가장 아쉬웠던 프로그램은 콜라그래피다. 한주 전에 강사님이 어릴 때 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나온 사진을 모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 나는 모바일에 저장된 사진보다 예전에 사진관에서 뽑았던 가장 오래된 사진들을 찾아 다시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냈다. 어떤 작업일지 궁금해 네이버에서 찾아보기까지 해 열장이상 보내라는데 서른장 넘게 보냈다. 사진을 찾으려서 얼마나 여러가지 기억이 떠오르는지 그 이야기가 참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로 중단되었다. 너무 속상했다.

하지만 코로나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못다한 프로그램은 다음년에는 꼭 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 수업을 지속하기 위해 수고하신 남구문화원 관계자와 세 분 강사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나 영

코로나 시기에 야외활동 겸 체험수업이라서 엄청 기대한 수업인데
 몇 번 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수업이지만 알차고 다양한 수업이었던것 같아요~
 실크스크린과 석고조형물, 도자기 모두 좋았고 ^^
 우리나라의 문화 복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었어요.
 내년에도 이 활동을 하면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선생님들 모두 수고 하셨고 고마웠어요~~



장명덕

수업을 하면서 무심히 잊고 있던 지난 시절의 추억의 순간들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과거의 나 자신을 그리고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반딧불이 토닥토닥을 마치고>

채 미 영

남구로 이사온 지 2년이 되어갈 무렵...
 낯설고 물설다고 하던가...
 슬슬 지역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동네가 익숙해져 갈 무렵..

코로나 19로 인한 중간 개강 안내가 있어
 연필 소모반에 등록을 하려고 간
 남구 문화원에서...

반딧불이 토닥토닥에 관한
 강사님의 안내를 받고
 등록을 한 후...

의미 있는 수요일을 보내게 되었다....

면가방에 실크스크린으로 무늬를
 실크스크린으로 찍어내고
 나의 손 모양을 석고로 떠보고
 흙으로 작은 수반을 만들면서



강사님과 수강생들과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형성 되면서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옛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모임이었다.

비록 코로나 19로 인해
 계획된 시간은 다 채우지 못했지만
 그나마의 시간들로도 충분히
 나를 즐겁게 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석해서 따뜻함 모임이
 계속되길 바란다.

마음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 강사님과 관계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주강사 탁경아

2020년은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일이다.

음력 1월 1일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 설! 온 가족들과 함께 모여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코로나'라는 생소한 단어의 바이러스가 이국땅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유튜브 영상이 떠다니기 시작했다. '중국은 어쩌냐!' 그냥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나의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이한 뉴스일 뿐이었다. 그러나 곧 바로 2월부터 우리나라에도 그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고 급속도로 퍼져나가 우리의 2020년은 바이러스를 방어하느라 평범하던 일상의 모습은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경계', '격리' 이러한 단어들로 점철되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나날들이었다.

학교도, 직장도 모두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학교 교육현장, 사회교육 현장, 그 속에서의 '비대면' '언택트' 등의 다양한 새로운 단어들로 대비하고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는 세상을 위해 사람들은 발 빠르게 준비하는 모습들이었다.

사각지대.....

우리 어르신들은 발 빠른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사각지대에 놓였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그 속도를 맞추기에는 모든 기능들이 아날로그화 되어 있는 어르신들!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생을 내가 아닌 이들을 위해 희생하시던 분들이 이제야 자식들 다 키우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고 싶고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 겨우 인생의 달콤함을 느끼려는 '화양연화'에 발을 담그려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바이러스는 고령에게는 더욱 취약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다시금 '집콕'

변화하는 사람을 만나 공감하고 교감하기보다는 미디어를 활용한 언택트... 비대면....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한 소통....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반딧불이 사업에서의 만남에 방해가 되었다. 원래의 시작인 3월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하여 7월 느지막이 첫 만남을 하게 되었고 그나마 신청한 많은 인원들도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빠져나가게 되고 몇몇 되지 않은 참여자들과 함께 겨우 잠시의 만남과 이별을 번갈아가며 겨우 진행이 되었다.

보조강사 김희진

'반딧불이 토닥토닥!' 참 정겹다.

코로나의 빈틈을 겨우 비집고 어머니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졌고 벌써 손주가 생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세월에도 마음은 이팔청춘의 꽃같은 모습으로 눈을 반짝이며 만남이 이루어 졌다. 코로나의 그 확산 세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들링을 통하여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그 시절의 아이가 되어가는 순수한 열정도, 실크스크린 작업으로 스스로 불태우지 못한 소녀 시절의 꿈도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금 이 자리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으시기에 충분하다는.

손 캐스팅에서의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어르신들의 삶은 우리 젊은 세대가 존재가능함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매번 새로운 작업을 통한 어르신들의 기억의 상기 작업에서는 어르신들의 가슴에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은 놓지 않은 꿈이 있고 열정이 있었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이야기를 2021년에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차분히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그림 못 그려요~ 글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림 전시장 가고 야외활동 하는 수업 아닌가요?"

기존의 미술수업과 달리 글쓰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그리 는 장수탕 선녀님 그림책 수업을 처음 접해보시던 어머님들은 매시간 투정어린 즐거운 긴장을 하셨다. 그림책의 다양한 활용과 글쓰기 등 여러 분야를 접목한 낯선 수업과 코로나라는 큰 장애물 때문에 시작은 고비나 많았으나 어머님들은 서서히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설레어 하셨다.

매끄럽게 진행 될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예고 없는 갑작스런 휴강과 간 휴강은 있었지만 어머님들은 기다렸단 듯이 즐겁게 오셨고 슬프거나 혹은 기쁜 삶들을 그림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림과 어머님들을 연결해 주는 디딤돌로 쓰일 수 있게 되어 기뻐던 시간이었다. 기회가, 수업이 또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면 어머님들에게 무궁무진한 그림의 세계, 동화책의 세계, 소통의 세계에 친근감 있게 그림을 전달하고 꼭 빠지게 해드리고 싶다.



어른신문화예술동아리

반딧불이 토닥토닥

발행처 | 부산남구문화원

발행인 | 김철

발행일 | 2020년 12월 11일

기획편집 | 부산남구문화원, 탁경아

ISBN | 979-11-91263-07-7-03630

※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